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한 차례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네요. 6·4 지방선거의 막이 내렸습니다. 모두들 애 쓰셨습니다.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 도지사 당선인 윤장현·이낙연. 그리고 그밖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 우선 축하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맨 먼저 어디를 찾으셨습니까. 5·18묘지는 다녀오셨는가요. 한 군데 더 추천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뒷산입니다. 그곳엔 백비라고 일컫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업적도. 글자라고는 한 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를 백지(白紙)라 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비석이 바로 백비(白碑)입니다.

아시겠습니까만 여기에는 사연이 있지요. 백비의 주인공인 박수광(1491~1554) 선생은 40년 가까이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한성부윤과 도총관에 전라도관찰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접대 한 번 받지 않은 채 평생 가난하게 지냈지요.

선생이 남긴 유언도 소박했습니다. 고향에서 장사를 지내도 무덤엔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막상 일이 닥치자 가족들은

장례비조차 없이 걱정이 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명종)이 장례비를 보내고 비를 세울 빚들을 하사했다지요. 자신들은 고된 끝에 비석에 아무것도 새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공적을 새기는 게 오히려 선생의 생애(生)가 될까 우려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백비는 오늘날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 중 하나만 택하고

물론 황금 보기를 둘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쉽다면 이렇게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윤장현 4억7천, 이낙연 14억6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미 가진 재산을 다 등록하셨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명예와 부(富) 둘 다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최근 국무총리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국민검사' 안대희의 좌절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윤장현 65세, 이낙연 62세. 앞으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당선되신 모든 분들. 부디 한 번만 하고 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 세 번 하려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쁜 말

당선인들께 편지 한 장 부칩니다

안 듣기 위해 '좋은 것이 좋은 거'라며 두루뭉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다음번 선거 자금 마련을 생각하면 술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당선되기까지 그동안 신세 찢던 사람들에게 대해 의리를 지키려는 것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의리, 물론 좋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리라고 하면 한번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잘 유지하는 것을 뜻하니까요. 물론 주민들과의 의리는 지키십시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의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서도 됩니다. 한 자리 쟁거 보려고 캠프에 들어왔던 사람들. 뒤늦게 당선 가능성을 보고 부나비처럼 물러들었던 어중이떠중이들. 옥석(玉石)을 가린 후, 바로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의리의 사나이' 배우 김보성이 요즘 뜨고 있던군요. 시시때때로 으리! 으리를 외쳐대던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비쳐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는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줄곧 한 가지 캐릭터만 밀어붙인 끝에 요즘 크게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만약었던 초심(初心)을 끝까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 출신 시민운동가 윤장현. 기자 출신 4선 국회의원 이낙연.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두 분 외에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점을 우려합니다. 밖에서 비판만 해 왔던 행정은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만나 들으십시오.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은 멀리하고 사람은 가까이하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것만 지키면 끝!'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초심 잃지 않으시길

며칠 전 광주의 사업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광주에도 카지노나 경마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카지노 같은 것을 반대하니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나서는 업자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었지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까지도 편견 없이 경청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한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영세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만 줄이면서 옛날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조선시대 어떤 임금(중종)은 궁궐 안뜰에 세 개의 문을 세우고 청문·예문·탁문이라고 써 붙이도록 했습니다. 청문(淸門)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고, 예문(例門)은 보통 사람이, 탁문(濁門)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런 연후에 모든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문을 통과하게 했다는군요. 고관대작들이 모두 보통문으로 나가는데 한 사람 조사수(1502-1558)만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청문으로 가려는 거예요. 한데 이런 그를 보고 아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선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사수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6기 5대 과제부터 풀어나가라

광주-문화전당 콘텐츠·U대회 준비·군공항 이전 등 전남-F1 대회 지속 여부·여수 엑스포장 활용 등 난제

광주·전남 시·도가 민선 6기 새로운 수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 내 긴급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 공동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민선 5기 당시 잠시 끊겼던 양시·도의 광역협력 행정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화전당 개관·U대회 개최·KTX개통·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군공항 이전=광주시의 긴급 현안은 크게 5개 과제로 나뉜다. 우선 빠르면 오는 10월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다. 문화전당은 올 상반기에 하드웨어 공정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7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지만, 성공적 개관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문화전당의 내부를 채울 콘텐츠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 또한, 박해자 국회의원이 대제 입법안으로 발의한 문화전당 운영조직을 민간이 아닌 일부 정부

조직으로 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도시 내 군사시설 이전도 핵심 현안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민 수십만명이 극심한 전투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초를 다투는 해결 과제다. 7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 7월 열리는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다. 올 12월 완공되는 호남고속철도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광주~서울이 1시간 30분대로 단축됨에 따라 광주의 경제권이 서울로 빨려들어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더불어 KTX 광주역 진입 문제도 마무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도 발등의 불이다. 특히 선수촌 건립은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F1-KTX 노선 확정·술라시도 활성화·여수엑스포장 활용·친환경농업 업그레이드=신임 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올

해 유지권료 협상 실패로 중단된 F1대회의 존속 여부 및 F1 경기장의 활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일단 정부가 최근 전남과 대구를 자동차 튜닝산업 특성화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대구보다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3, 4, 5기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의 내실화도 중요 해결 과제다. 전남 인구의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특히 2015년이면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농민들이 유기농, 무농약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J프로젝트로 불리는 술라시도 조성사업도 장기간의 노력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만큼 부분적인 인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 동부권의 랜드마크인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역 여력을 분열시킨 KTX 나주역 경유 등 노선 문제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나주지역에서는 KTX의 나주역 10회 이상 정차를 요구하고 있고,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수막은 제거되도 공약은 지키길 제6회 전국 지방선거가 끝난 5일 광주시 광고협회와 자원봉사자들이 광주역 앞에 걸려있는 선거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최해태기자 choi@kwangju.co.kr

윤장현·이낙연, 인수위 구성 착수

尹, 캠프 배제한 외부인사 투입
李, 전문가 중심 최소 인원 구성

광주시와 전남도에 새로운 광역단체장이 들어오면서 윤장현, 이낙연 당선자는 곧바로 인수위 구성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현직을 지른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달리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경

중을 받고 선거기간 동안 운영해 오던 선거대책본부 해산식을 했으며, 인수위 구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본격적으로 인수위 구성 등에 대한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당선자는 인수위 구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적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3선을 한 박준영 지사의 지난 12년 도정 업무를 파악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작지만 내실 있게',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5일 전남선관위에서 당선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중-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트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골목상권자영업자
추천
특례보증대출 연 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